

로컬블로그

군산, 4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2016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며, 2개 분야(주민·여권신청 민원 도우미 등)에서 근로하게 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만18~29세) 청년지원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직업대상사업 선발인원 범위내 우선 선발한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군산시 투자지원과(☎54-276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미꾸라지 등 20만마리 합열천 방류

익산시가 17일 자연생태계 복원과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합열천에 미꾸라지 치어 2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 방류사업은 전라북도 해양수산과 민물시업장에서 생산된 치어를 양호 무상으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받아서 합열천에 방류하고 있다. 방류사업은 외래어종의 유입으로 사라져 가는 토산 어족 자원회복과 하천정화, 어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업장에서 인공부화 한 미꾸라지 치어로서 생태계 회복은 물론 향후 수산자원증식에 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주민세 17억 4000만원 부과

군산시는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균등분) 총 17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1만7104건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10만4985건, 전년도 부가부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7604건,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 4515건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읍면동 구분 없이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1천원을 합하여 1만1천원을 부과·고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수는 시민의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수협면세유 공급시설 논란 대책마련

군산시, 해망2지구 주민 안전문제 강화·행복주택 건립사업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해망동에 신축 중인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수협 해망동 피해대책위원회 등이 한자리에 모여 면세유 공급시설이 들어설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해망 2지구 일원 주민들의 안전대책과 이주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해망 2지구 주민들의 안전대책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즉각적인 응급보수와 가로등 설치 등 안전문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은 단기간에 시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행복주택건립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군산수협은 오는 10월까지 국비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해수부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될 상황으로 공사를 재개해 시설물 준공을 완료 후 군산시의 대책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시설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설물 미 운영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탱크로리를 이용, 해당 장소에서 어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군산시와 수협의 이와 같은 협의안에 대해 피해대책위원회는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분위기가.

현재 피해대책위원회 총 45명 중 40명은 군산시 협의안에 동의했으며 5명은 무조건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염규창)는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산시와 수협 간 대책 안을 공중해 출수 있다며 공사를 진행을 더 이상 막지 않을 것”이라며 “단, 협의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공사 중지 및 철거 집회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망동 면세유 공급시설은 수협에서 운영 중인 유류 공급 바지선이 선령 30년이 넘어 해수부로부터 운영중단 권고를 받아 국비 13억원(국비 85%, 자부담 15%)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 현재 공진율이 80%에 이르지만 인근 주민들이 위험시설에 따른 안전성을 우려해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사가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교체 시행 강화

군산소방서(서장 유우중)는 지난 1월 강화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물질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성 경고표지 판 부착을 홍보하고 나섰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위험물 운송사고는 33건이 발생했다.

특히 군산지역은 산업공단이 위치해 있어 폭발성 위험물 또는 유독물의 운반·운송이 많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들 위험물질 운반 차량의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물 이동 중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경고 표지판 부착을 홍보하고 나섰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질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부착하면 사고 발생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대형 재난사고 피해 줄일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경고표지 교체”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성료

종합건강검진·폐CT촬영 전문의 체계적인 금연교육 등

금연의지는 있지만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연에 여러 차례 실패했던 전라북도 공무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열린 원광대학교병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가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전북금연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평일 시간엔 부족한 대상자들을 위해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었다.

전문적인 금연치료와 집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로 진행 된 이번 캠프에는 황금연휴를 반납하고 ‘금연’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참가 한 대상자 20명의 굳은 의지가 돋보인 캠프였다.

4박 5일간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나빠진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종합건강검진, 폐CT촬영, 스케일링 및 치과검진과 함께 전문의에 의한 체계적인 금연교육 프로그램과 건강상담, 임상심리사이에 의한 전문심리상담, 금연에 도움이 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이번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마친 김모(익산시 거주) 참가자는 “평소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매번 금연에 실패하여 고심했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나와 비슷한 상황



전북금연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라북도 공무원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열린 원광대학교병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가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었다.

에 놓인 참가자들과 함께 금연을 하려는 동기유발이 되었고 4박 5일간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준 운영진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금연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금연지원센터 4박 5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 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흡연자 또는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유증,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에도 지속적인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

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에 따라 참가비 10만원을 내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약품 처방전을 받아 전북금연지원센터에 신청할 경우 참가할 수 있다.

한후 전문치료형 캠프는 9월 30일(금) ~ 10월 4일(화),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 두 번의 캠프가 남아있다. 캠프에 대한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전화(1833-9030 또는 859-2403)로 하면 된다.

/익산=정왕원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익산시, 섬유산업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익산시가 17일 기업연구소장을 초청하고 참여한 섬유(봉제)산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최진호 회장 겸 화섬유 대사를 비롯한 익산시 섬유회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익산 섬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시장일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익산섬유(봉제)업체협의회 최건호 회장은 “과거 익산섬유산업의 성장은 익산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

으나 현재는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산업기반의 노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현을 익산시장은 우리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섬유산업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며 “향토산업육성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침체된 우리시 향토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생생직업체험교실’ 직업체험장 모집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에게 진로와 직업을 선택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생생직업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직업체험터를 모집한다.

‘생생직업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체험실에서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직업에 대한 설명과 진로상담, 체험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직업체험터 모집은 지난달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체험

선호도 조사결과, 체험하고 싶은 직업으로 선정된 ▲미술사 ▲의사 ▲요리사 ▲파티네 ▲바리스타 ▲로봇과 화학 등 6개 분야의 직업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관내 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직업체험터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 및 기업체는 군산시 홈페이지(http://gunsan.gokr)와 어린이 시청 홈페이지(http://gunsan.gokr/child)에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paradisi97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Seeseri Clean UP! 모든 부분이 완벽히 청소되고 유지되는!!!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랜 찌든때와 막힘
- 스물 ~ 스물 올라오는 음식물의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넘너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 박스 용량 (100~120cm)은 배수구 크기(10~12cm)와 상관없이 20~30cm 배수구 용량에 맞춰 사용 가능합니다.
- 배수구 용량 20~30cm 배수구 용량에 맞춰 사용 가능합니다.
- 배수구 용량 20~30cm 배수구 용량에 맞춰 사용 가능합니다.



- 청결하고 밝고 쾌적한 주방을 만들어 드립니다.
- 씨서리가 배수통을 완벽하게 청소합니다!
- 수업의 활이 배수통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주방이 청결합니다!
- 식용품 사고 일격에 세척 가능합니다!